

키에르케고어(S. Kierkegaard)의 심리학적 실험 동기 연구

유 영 소*

- I. 들어가는 말
- II.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들
 - 1. 보속(補贖): 역사가 된 키에르케고어의 레기네
 - 2. 두려움과 떨림: 파혼에서 저술가가 되기까지
 - 3. 폐쇄성의 침묵: 아버지/불행한 사랑
 - 4. 고백: 깊은 물속으로부터의 탄식, 심리학적 실험
- III. 발생: 「“유죄냐?”/“무죄냐?”」의 여섯 개의 삽화들
- IV. 나가는 말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647).

* DOI <http://dx.doi.org/10.17527/JASA.60.0.05>

I. 들어가는 말

본 논고는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Psychological Experiment)의 동기에 대한 연구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키에르케고어가 하나의 인생관을 재현하기 위해 고안한 간접전달의 한 방식이다. 간접전달은 특정한 인생관을 대표하는 가명 저자에 의한 전달을 말하며, 특정한 인생관이란 키에르케고어가 제시하는 심미적-윤리적-종교적 실존 단계들¹⁾에 상응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실험의 가명 저자는 관찰자이자 창작자라는 점에서 다른 가명들과 구별된다. 모든 가명이 키에르케고어의 창작이지만, 실험의 관찰자는 스스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하며, 창조된 인물은 구체적 배경과 상황이 설정된 극적 구조 안에서 자신의 인생관, 곧 실존 단계를 드러낸다. 『반복: 실험적 심리학의 시도 Repetition: A Venture in

- 1) 본고가 다룬 중심 저술, 『인생길의 단계들 Stages on Life's Way』(1845) (이후 『단계들』로 표기)은 가명의 제본업자 힐라리우스 보우비너(Hilarius Bogbinder, '쾌활한 제본업자'를 뜻함)가 서문을 쓰고, 여러 가명 저자들의 글을 편집한 것으로 3부로 구성된다. 이 세 부분은 각기 실존의 세 단계와 상응하며, 제3부 「“유죄냐?”/“무죄냐?”: 수난 이야기,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에 의한 심리학적 실험 “Guilty?”/“Not guilty?” A Story of Suffering, A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by Frater Taciturnus」(이후 「“유죄냐?”/“무죄냐?”」로 표기)에서 처음으로 키에르케고어의 세 실존-영역(the existence-spheres)이 언급된다. 「“유죄냐?”/“무죄냐?”」는 주인공 퀴담(Quidam)의 일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가명 저자 타키투르누스의 심리학적 실험이다. 타키투르누스는 실험 뒤에 붙인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실존의 세 영역이 있는데, 심미적인 것(the esthetic), 윤리적인 것(the ethical),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이다. [...] 심미적 영역은 직접성의 영역이며, 윤리적인 것은 필요조건[...]의 영역이다 [...] 윤리적 영역이 하나의 통로인 것처럼 [...] 회개가 그것의 표현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회개는 가장 변증법적인 것이다. [...] 회개에는 운동의 추진력(the impulse of motion)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역전된다. 이 추진력이 바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사이의 차이로서 심미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Søren Kierkegaard, *Stages on Life's Way*,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 476-477. * 이후로 'SLW, 쪽수'로 표기. 실존의 세 단계(영역)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지성의 샘 1995), pp. 67-106.

Experimenting Psychology』(1843)는 심리학적 실험 형식이 처음 시도된 저술이다.²⁾ 제목 그대로 하나의 시도이며 여전히 관찰자인 가명 저자가 중심이 된다. 2년 뒤에 발표된 「“유죄냐?”/“무죄냐?”」는 키에르케고어 자신이 모든 가명 저술들 중 첫 시도로 꼽는 실험이다.³⁾ 관찰자는 실험의 상황 바깥으로 완전히 물러서고, 독자는 실존하는 사람 자체, 퀴담(라틴어, ‘어떤 남자’)과 마주한다. 퀴담의 내면을 실황 중계하듯 일인칭 시점으로 기술되는 실험은 그의 고뇌와 우울, 절망과 갈등을 읽는 독자가 그가 곧 미쳐버리거나 앓을까 혹은 자신도 거기에 휘말리는 게 아닐까 우려할 만큼 현실적이다. 이 현실성은 단순한 문학적 효과가 아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허구를 실화처럼 꾸미는 소설의 현실성 효과(the effect of actuality)와는 반대로 그 관계를 역전하여, 사실상 실제 삶에서 비롯한 것을 언제나 심리학적 실험이라는 문구로 은폐한다.⁴⁾

실험의 퀴담은 종교적 충동로 말미암아 약혼녀 콰이담(Quaedam, 라틴어 ‘어떤

2) 이후 『반복』으로 표기. 키에르케고어 전집 영역자 홍 부부(Howard V. Hong & Edna H. Hong)는 『반복』의 역사적 소개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용어, ‘실험(Experiment)’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제공한다 (Sø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Historical Introduction, xxi-xxii 참조). 실험이 시(poetry)처럼 가능성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홍 부부는 특별히 「“유죄냐?”/“무죄냐?”」의 ‘실험’을 ‘상상의 구성(imaginary construction)’으로 의역했다 (각주 1의 영문 제목 참조). 문제는 이 번역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자주 인용되는 키에르케고어의 일지의 경우, 이들이 덴마크어 원어 그대로 ‘실험’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용어 통일을 위해 원문에 의거하여 영문판의 의역 ‘상상의 구성’을 ‘실험’으로 옮겼다.

3) Søren Kierkegaard,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VI,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5865(Pap. VII⁷ A 83) n.d., 1846. * 이후 본문에 『일지』로 쓰고, 각주는 홍 부부의 영역판 약자 ‘JP 권수, 일지 번호(덴마크어 원전 *Søren Kierkegaards Papirer(Pap.)* 참조 번호), 년도’로 표기하고, 괄호 안의 원전 번호는 처음 인용되는 각주에만 표시함.

4) JP VI 6870(Pap. XI¹ A 131) n.d., 1854.

여자)과 파혼한다. 이 불행한 사랑은 키에르케고어의 가명의 심미적 저술들을 관통하는 주제이며, 그가 약혼녀 레기네 올센(Regine Olsen)과 파혼한 사건은 저술의 직접적 동기였다. 특별히 「“유죄냐?”/“무죄냐?”」는 불행한 사랑을 다룬 마지막 저술이지만, 처녀작 『이것이냐/저것이냐』를 쓰는 중에도 마음에 두고 떠오르는 착상들을 기록했고, 오랜 기간 상당량의 예비 작업이 있었던 유일한 작품이다. 결과적으로 키에르케고어 스스로 그때까지 쓴 저술 중 가장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손꼽는 작품이 됐다.⁵⁾ 이 생동감은 무엇보다 실험의 주제와 그 세부 내용이 키에르케고어의 실제 체험과 근접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전기적 배경과 저술 동기에 대한 연구 없이 간접전달이나 실험으로서 「“유죄냐?”/“무죄냐?”」를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코펜하겐대학의 최안 키에르케고어 연구소 교수 가르프(Joakim Garff)의 키에르케고어 전기는 이런 방향의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중요한 자료다. 본문만 800쪽이 넘는 『최안 키에르케고어: 전기 Søren Kierkegaard: A Biography』는 키에르케고어의 생애와 저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고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유죄냐?”/“무죄냐?”」는 유사한 형식의 「유혹자의 일기」에 비해 단독 연구가 적은 편인데, 가르프의 책은 전기임에도 「“유죄냐?”/“무죄냐?”」에만 10쪽 이상을 할애하여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제시한다. 이것은 실험 자체가 키에르케고어의 생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가르프가 심리학자 같은 방식으로 전기적 사실과 저술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말해 준다. 2017년에 출판된 가르프의 또 하나의 전기, 『키에르케고어의 뮤즈: 레기네 올센의 수수께끼 Kierkegaard's Muse: The Mystery of Regine Olsen』는 레기네의 생애를 다룬 드문 자료로서, 키에르케고어 사후에 레기네에게 헌정한 저술과 유품을 당사자인 레기네가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고찰하는 본문 2장 1절을 기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키에르케고어의 저작술을 연구하는 웨스트펠(Joseph Westfall)은 가르프를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해체주의적 독해의 선두주자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가르프는 키에르케고어의 자기-설명을 불신하고, 그의 저술들에서

5) JP V 5866(Pap. VII¹ B 84) 1846.

실제와 다른 각색된 모습과 삶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⁶⁾ 아마도 가르프가 실명 저술과 가명 저술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심리학자 같은 태도로 가능한 한 더 명료한 실제 키에르케고어 상(象)을 재구성하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본고의 해석적 관점은 이와 반대로 ‘키에르케고어에 의한 키에르케고어 읽기’에 가깝다. 따라서 가르프의 「“유죄냐?”/“무죄냐?”」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참조했다.

『국제 키에르케고어 해설서: 인생길의 단계들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Stages on Life's Way』에 수록된 「“유죄냐?”/“무죄냐?”」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들은 텍스트의 구조와 주요 개념의 용법, 다른 저술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다. 아쉽게도, 본고의 해석 대상인 「“유죄냐?”/“무죄냐?”」의 여섯 개의 삽화에 대해서는 몇몇 글이 개관을 제공하지만 상세한 분석은 없으며, 심리학적 실험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를 밝히는 연구 목적을 위해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일지』를 일차적인 참고자료로 삼았다. 일지의 유고 전집은 흥 부부의 『최안 키에르케고어의 일지와 문서들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총 7권)과 키에르케고어 학자들이 코펜하겐 키에르케고어 연구소와 협력하여 펴낸 『키에르케고어의 일지와 노트들 Kierkegaard's Journals and Notebooks』(11권 출간)을 대조하여 참고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번역이 덴마크어 원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말 용어 번역은 주로 후자를 참조했다. 그러나 역자 주 인용을 제외한 각주 표기는 일관성을 위해, 『일지』를 포함하여 흥 부부의 영문판 전집을 기본으로 했음을 밝혀 둔다. 국내 선행 연구로는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 연구』의 제2부에 실린, 키에르케고어가 레기네에게 보낸 편지들과 역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에 수록된 「생애와 저작」에 큰 도움을 받았다. 본고의 덴마크 인명 및 지명의 우리말 표기는 원전을 번역한 앞의 두 저서를 따랐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실험을 포괄하는 간접전달의 주요 동기들을 네 가지로

6) Joseph Westfall (ed.), *Authorship and Authority in Kierkegaard's Writings*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8), pp. 21-22 참조.

정리하고, 외적 결과로서 입증되는 동기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심층의 내적 동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장 1절 ‘보속’은 전체 저술을 전(前) 약혼녀 레기네에게 헌정한 키에르케고어의 유언을 다룬다. 2절 ‘두려움과 떨림’은 파혼 이후 저술가가 된 경위에 대해, 3절 ‘폐쇄성의 침묵’은 간접전달의 심층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및 레기네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해 고찰한다. 4절 ‘고백’은, 가상의 관찰자 타키투르누스를 통해 귀담의 폐쇄된 영혼의 탄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심리학적 실험이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폐쇄성의 침묵에 맞선 자기 고백의 운동임을 논증한다. 3장은 「“유죄냐?”/“무죄냐?”」 안에서 2장에 제시된 동기들을 탐색한다. 타키투르누스는 실험의 일기 속에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귀담의 침묵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여섯 개의 삽화들을 삽입했다. 이 단편들은 발성을 돕는 히브리어의 모음처럼 귀담의 폐쇄성의 침묵이 감춘 파혼의 동기들을 드러내는 장치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삽화들을 소개하고,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앞서 고찰한 실험의 동기들을 확인하는 것이 3장의 목표다. 전체 논의의 핵심적 결론은 2장 4절 ‘고백’에 있다. 여기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을 창출한 폐쇄성의 침묵과 고백의 투명성 간의 상호 모순된 변증법적 동기가 밝혀진다.

II.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들

1. 보속(補贖): 역사가 된 키에르케고어의 레기네

1855년 11월 11일, 키에르케고어가 죽었을 때 그의 옛 약혼자였던 레기네는 코펜하겐에서 멀리 떨어진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에 있었다. 그녀의 남편 슬레겔(Johan Frederik Schlegel)이 5년 임기의 식민지 총독으로 임명 받아 같은 해 3월 17일에 함께 덴마크를 떠났기 때문이다. 출발 당일, 레기네는 작별인사를 위해 키에르케고어를 찾아 거리로 나섰고 약속이나 한 듯 그와 마주쳤다. 영문을 모르는

그에게 파혼 이후 14년의 침묵을 깨고 레기네가 건넨 짧은 축복의 말은 결국 생애 마지막 인사가 됐다. 한편 키에르케고어는 형 페터(Peter Christian Kierkegaard)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열라는 당부와 함께 두 개의 봉투를 남겼다. 검은 밀랍으로 봉인된 봉투에는 “나의 전 약혼녀, 레기네 슬레겔 부인에게 내가 남긴 작은 유산을 무조건 물려줘야 한다”⁷⁾는 유서가 담겨 있었다. 날짜가 없는 이 유서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니므로 레기네와 결혼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를 그녀에게 돌려줘야 하며, 상속을 거절할 경우 그녀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함을 피력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다른 봉투의 문서는 1851년 8월에 쓴 것으로 내용은 이렇다. “나의 저술가로서의 활동 전체가 헌정된, 어느 날엔가 이름 불릴 ‘익명의 그 사람’⁸⁾은 나의 전 약혼녀 레기네 슬레겔 부인이다.”⁹⁾

형 페터로부터 키에르케고어의 부음을 받은 레기네는 단독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거절했다. 남편 슬레겔의 답장을 통해 그녀가 요구한 것은 약혼 시절 편지들과 그녀의 소유였던 물품 몇 가지였다.¹⁰⁾ 레기네와 편지를 교환하고, 서인도 제도까지 소포를 부치는 일은 키에르케고어의 유품과 문서들을 정리했던 조카 헨릭 룬(Henrik Lund)이 맡았다. 레기네는 헨릭으로부터 약혼 당시 키에르케고어가

7) Bruce H. Kirmmse, *Encounters with Kierkegaard: A Life as Seen by His Contemporarie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47-48.

8) ‘익명의 그 사람(the unnamed person)’은 키에르케고어가 1851년에 출판한 「금요일 성찬식 때에 할 두 개의 강화」에 쓴 다음의 헌사에 등장한다. “언젠가는, 그의 이름을 부를, 익명의 사람에게/ 이 작은 저서와 함께 모든/ 저작 활동을 바칩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최안 키에르케고어,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표재명 옮김, (프리칭 아카데미 2005), p. 82). 레기네에게 바친 헌사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언급은 다음을 참조할 것. *JP VI 6675(Pap. x⁵ B 263) n.d.*, 1849-50.

9)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A Biography*, trans. Bruce H. Kirmms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 801;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The Mystery of Regine Olsen*, trans. Alastair Hanna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p. 52. * 이후 가르프의 두 책은 각각 *Søren Kierkegaard*와 *Kierkegaard's Muse*로 표기.

10)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p. 801-802; *Kierkegaard's Muse*, p. 53.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 일체와 장신구들 외에, 그가 유일하게 속을 털어놓았던 친구 에밀(Emil Boesen)에게 보낸 편지들¹¹⁾까지 받았다. 그 편지들은 키에르케고어가 파혼 후 첫 번째 베를린 여행 중에 쓴 것이었다.¹²⁾ 레기네는 헨릭과 나눈 편지에서, 말이든 글이든 자기를 염두에 둔 어떤 것도 숨기지 말 것을 간청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키에르케고어)의 몇몇 저술들을 브라질 장미목 장(櫥)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¹³⁾고 썼다. 레기네는 풍문으로만 들었으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1849년 『일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손수 고안한 디자인으로 키 큰 장미목 장(a tall palisander cupboard)을 만들게 된 사연을 밝혔다. “그녀는 설령 작은 장 속에서 살아야 할지라도, 내 곁에 머물게만 해 준다면 평생 동안 감사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고려하여 (이 장은) 선반 없이 제작됐다. 그 속에 모든 것, 그녀를 회상케 하고 또 그녀에게 나를 떠올리게 할 만한 것 일체를 조심스레 간직했다. 거기에는 그녀를 위한 익명의 저술들의 사본도 한 부씩 있었다. 으레 두 개의 사본만 모조 양피지에 인쇄됐다 — 하나는 그녀를 위해, 하나는 나를 위해.”¹⁴⁾

11) 1841년 10월 11일 레기네와 결별한 키에르케고어는 10월 25일 비밀리에 베를린으로 떠났다. 체류 당시 에밀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일곱 통이었던 것 같다. 레기네를 몰래 탐색하도록 부탁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베를린에서의 행적을 담은 이 편지들의 보관함 겉면에는 그가 죽은 뒤에 불태워달라고 쓰여 있었다.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p. 199–200; *JP VI 6540(Pap. x² A 212) n.d.*, 1849 참조.

12)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4. 레기네가 받은 두 개의 소포 꾸러미에는 본문에 언급된 것 외에 다음이 포함됐다. • 1849년의 일지 “그녀’에 대한 나의 관계, My Relationship to ‘Her” (*JP VI 6471, 6472*) • 1849년 11월에 키에르케고어가 슬레겔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된 개요와 초고(레기네에게 사죄와 화해를 청하는 편지를 동봉하여, 슬레겔의 양해와 전달을 부탁한 편지. 슬레겔은 단호히 거절했으며, 레기네에게 보낸 편지를 열지 않고 돌려보냈다) (*JP VI 6537 (Pap. x² A 210) Letters no. 239, 1849; 6538 (Pap. x² A 210) n.d.*, 1849; 6540) • 키에르케고어의 유언이 담긴 두 개의 봉투.

* 소포의 전체 목록은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6 참조.

13)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 179;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4 참조.

14) *JP VI 6472(Pap. x⁵ A 149) n.d.*, 1849. 『일지』 곳곳에 ‘그녀에 관하여’라는 표제의 글

키에르케고어는 “그녀의 키 큰 장(her tall cupboard)”¹⁵⁾ 혹은 “단독의 키 큰 장(the lone tall cupboard)”¹⁶⁾이라고 지칭한 장미목 장에 보관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일지』에 상세히 적었다. 특히 사후에 자신의 저술들이 레기네와 선친 미가엘 키에르케고어(Michael Pedersen Kierkegaard)에게 헌정되는 것이 그의 바꿀 수 없는 뜻이며, “그녀는 역사에 속해야만 한다.”¹⁷⁾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했다: “그녀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내 생애는 절대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부각할 것이고, 나의 문학 작품은 그녀를 위한 기념비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는 그녀를 역사 속으로 데려간다.”¹⁸⁾

‘역사’는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이 땅 위에서는 정당한 자리를 얻지 못한 그의 사랑이 쟁취할 수 있는 더 높은 고지였다. 실제로 “그녀의 이름이 내 이름과 함께 역사에 기억될 것”¹⁹⁾이라는 그의 예견은 실현됐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의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었다. 단 하나의 간절한 바람 — 그녀를 황홀하게 하는 것(to enchant her) — 을 가졌던 그는 자신이 거부되지 않을 ‘거기(there)’에서, 레기네 옆에 나란히 걸기를, 또한 행사 진행자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부디, 우리의 귀여운 레기네(our own dear little Regine)를 위해 길을 내주십시오.”²⁰⁾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거기’는

들이 여러 편 있으며, 1849년 8월 24일 쓰인 “그녀에 대한 나의 관계”는 그 중에서 가장 길다. 30번까지 번호를 매겨 레기네와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이 글의 25번째 항목에서 장미목 장이 언급된다. 이것은 선반 없는 캐비닛 형태의 키 큰 장으로, 여기에 가장자리에 금박을 두른 꽃무늬 비단 장정(裝幀)의 『이것이냐/저것이냐』를 포함하여, 비슷하게 장식된 『반복』과 『서문집(序文集)』, 갈색 벨벳으로 우아하게 장정된 『결론으로서의 비학문적 후서』등이 보관됐다. 레기네를 위한 유언을 담은 두 개의 봉투, 프리츠 슬레겔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녀에 대한 나의 관계”도 모두 이 안에 간직됐다.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4; JP VI 6472, 6538, 6540, 6762 (Pap. x⁴ A 299) n.d., 1851을 참조.

15) JP VI 6538.

16) JP V 6037 (Pap. VIII¹ A 219) n.d., 1847.

17) JP VI 6537 (Pap. x² A 210) Letters no. 239, 1849.

18) JP VI 6473 (Pap. x⁵ A 150) n.d., 1849.

19) JP VI 6642 (Pap. x³ A 168) n.d., 1850.

영원의 차원에 속하므로 그 성취 여부를 논하긴 어렵다. 다만 그의 사랑이 도달해야 할 항구²¹⁾가 그토록 멀었으며, 그 여정이 험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두려움과 떨림: 파혼에서 저술가가 되기까지

키에르케고어의 유품들은 긴 항해를 거쳐서 서인도제도의 레기네에게 닿기까지, 파혼 이후 14년을 가르프가 “레기네의 영묘(Regine-mausoleum)”²²⁾라고 표현한 장미목 장 안에 묻혀 있어야 했다. 이 14년은 키에르케고어에게 쟁투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파혼 선언 때문에 비방 당한 레기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이 획득한 모든 찬사를 그녀에게 돌려서 역사의 무대 위에 승리자로 우뚝 세우기를 진정으로 열망했다.²³⁾ 그러나 그 성취 과정은 시작부터 일체가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²⁴⁾이었다.

20) JP VI 6473. 키에르케고어는 이 땅에서는 레기네가 슬레켈에게만 속할 것이고, 역사에서는 그의 편에 설 것이지만 영원성 안에서는 그녀가 두 사람을 다 사랑한대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우리의 [...] 레기네”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99 참조.

21) JP VI 6473. 키에르케고어는 “나는 감히 그녀보다 내가 더 열렬하게 결혼을 원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나는 그 항구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22)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5.

23) JP VI 6800 (*Pap. x⁴ A 540*) n.d., 1852년 5월.

24) ‘두려움과 떨림’은 1843년, 가명 저자 침묵의 요하네스에 의해 발표된 키에르케고어의 책 제목이다. 그는 『일지』에서, 이 책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재생한 것임을 밝혔다 (JP VI 6491 (*Pap. x² A 15*) n.d., 1849). 앞서 이 사실을 시사했던 1843년 일지에는, 『공포와 전율』(우리말 번역본 제목) 제1부, 「조율(調律)」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언급된다. 창세기 본문을 시적으로 변형한 이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이 신앙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우상 숭배자인양 가장한다. 즉, 그는 험상궂게 표현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라고 아들을 속인다. 그는 마치도 이유기에 아기가 젖을 때도록 유방을 검게 물들이는 어머니와 같다 (Sø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pp. 10-11; 『공포와 전율/반복』,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pp. 21-23을 참조할 것. * 이후 FT 쪽수[우리말 번역본 쪽수]로 표기). 이에 대해,

내게 있어서, 약혼 시절을 채운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양심의 고통스러운 숙고였다. 아아, 내 약혼녀였던! 사랑하는 아이를 곁에 두고서, (내 양심은) “네가 감히 약혼을 해? 언감생심 결혼할 셈이야?”하고 고뇌했던 것이다. 나는 노인만큼이나 늙었고 그녀는 아이처럼 젊었다. [...] 그래도 관계는 과거와만 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나는 잔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이다. 그 악몽이 관계를 다른 범주들로 옮겨 놓은 탓에, 너무도 무서운 관계가 되어 마침내 둘 사이에 관능적인 면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너무 늙어서, 그녀는 성(性)이 거의 중요치 않은 사랑하는 아이처럼 되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이다. [...] 결국, 그대는 나를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대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보다시피,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이다.²⁵⁾

키에르케고어가 거의 강박적으로 레기네와의 불행한 사랑을 되짚으며 일지 곳곳에 기록한 파혼의 동기들은 결코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혼이 레기네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근본적인 죄는 애초에 관계로 끌어들여 “그녀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만든 것”²⁶⁾이라는 주장에는 시종 변함이 없었다. 그는 레기네가 구애에 응한 바로 다음날 그것이 실수임을 자각했다. 레기네 역시 약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단판이 된 — 멍하고 냉랭한 —” 그를 보았다.²⁷⁾ 약혼 당시 키에르케고어는 근본적으로 내면으로 향했으며, 정신적 우울의, 또한 레기네를 빠져들게 한 것에 대한 가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²⁸⁾ 반면

키에르케고어는 다른 한 사람을, 최소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하기 위해 이런 무서운 수단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자신은 약혼녀를 기만한 악당 노릇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상승배자를 가장한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임을 이렇게 암시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은 내 인생을 풀어낸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인들 중 누가 이것을 이해했는가?” (*JP V 5642 (Pap. IV A 76) n.d., 1843.*)

25) *JP VI 6473.*

26) *JP V 6482(Pap. X¹ A 667) n.d., 1849*

27)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56

28) *JP V 6482.*

채 스무 살도 안 된 레기네는 치기만만하여, 파혼 선언이 그의 우울 탓이라 여기고 도와줄 요량으로 더 헌신적으로 매달렸다. 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어가 무척 따랐던 그녀의 아버지까지 막내딸이 절망에 빠져 죽겠다고 단언하자, 딸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²⁹⁾ 키에르케고어는 극단의 수단을 강구한다. 레기네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믿게 할 목적으로, 가명을 써서 그의 사적인 연애담을 재생한 듯한 유혹자 이야기를 발표한 것이다.

‘그녀’를 떠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청했다. 『이것이냐/저것이냐』를 성공적으로 집필하고 완성하게 해 주시기를(이것도 그녀를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유혹자의 일기」는 혐오감을 줘서 물리치려는, 혹은 『공포와 진술』에서 “아이가 젖을 떼야 할 때, 어머니가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고 한 것과 같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시골 교구로 떠나게 해 주시기를[...].³⁰⁾

코펜하겐 같이 작은 도시에서 약혼자를 기만한 악당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키에르케고어는 레기네에 대한 연민과 가책으로 죽음을 자청했다. “나는 레기네를 떠났을 때 죽음을 택했다. 바로 그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게 일할 수 있었다.”³¹⁾ 이렇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리라 각오하고 『이것이냐/저것이냐』를 세상에 내놓았으나, 뜻밖에도 그의 처녀작은 대성공을 거뒀다. 더불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창조성이 내면에서 깨어나 그를 사로잡았다. 키에르케고어는 놀라운 생산력으로 단시간에 엄청난 분량의 저술들을 쏟아냈고, 본래 의도와 달리 시골 교구의 목사가 아닌 저술가가 됐다.³²⁾

29) JP V 5664 (Pap. IV A 107) 1843년 5월 17일; 6482; 6510 (Pap. x³ A 105) n.d., 1849 참조.

30) JP VI 6843.

31) JP V 5999 (Pap. VIII¹ A 100) n.d., 1847.

32) JP VI 6843; JP V 6356 (Pap. X¹ A 138) n.d., 1849.

3. 폐쇄성의 침묵: 아버지/불행한 사랑

키에르케고어의 운명을 바꾼 ‘불행한 사랑’은 1843년부터 45년까지 발표된 가명의 심미적 저술들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이냐/저것이냐』에 없는 단 한 가지는, [...] 시작은 했으며 생략해버린 내러티브다. 이것은 ‘불행한 사랑’이라 불릴 것”³³⁾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반복』이나 『단계들』에도 해당된다. 특별히 ‘실험’의 불행한 연인인 주인공은 ‘우울(Tungsind)’³⁴⁾의 범주에 있다. 이 ‘우울’은 사실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것이었고, 파혼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했다.³⁵⁾ 그의 우울과 특출한 상상력이 빚어낸 가능성의 세계는 인생 초기부터 그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고, 레기네와의 불행한 사랑을 계기로 여러 가명들을 통해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팽창됐다.

수년간 나의 우울은 나 자신에게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너(Du)’라고 말할 수 없게 했다. 나의 ‘너’와 나의 우울 사이에는 상상의 세계 전체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가명들에다 비위내야 했던 것이다. 행복한

33) JP V 5628 (Pap. IV A 76) n.d., 1843.

34) 매카시(Vincent McCarthy)는 “Morning and Melancholia in “Quidam’s Diary””에서 흥 부부가 ‘Tungsind’([ˈtʊŋ,sen] 정신의 중압감, heaviness of spirit)’의 번역어로 ‘depression’을 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20세기에 ‘depression’이 특별히 임상적 의미를 갖게 됐고, 프로이트와 그 계승자들의 문헌 및 분석과 결부 짓게 된 까닭이다. 그에 따르면, ‘Tungsind’이 더 어둡고 심각한 단계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어법에서는 ‘Tungsind’과 ‘Melancholi’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는다. 키에르케고어의 용법에서도 양자를 완전하게 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긴 해도, 『반복』에서 일반적인 용어가 ‘Melancholi’인 반면, “‘유죄냐?’/‘무죄냐?’”에서는 ‘Tungsind’이 거의 독점적 용어로 등장한다. 매카시는 ‘melancholia’ 같은 구식 용어가 ‘Tungsind’의 번역어로서 그 차이를 보다 잘 기술하고, 독자에게 그 용어가 생겨난 19세기 낭만주의의 맥락을 시사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Melancholi’는 ‘멜랑콜리’로 그대로 쓰고, ‘Tungsind’은 ‘우울’로 옮겼다. Robert L. Perkins (ed.),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1): *Stages on Life’s Way*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2000), p. 55, 각주 11 참조.

35) JP V 6835 (Pap. X¹ A 260) n.d., 1849; 5664.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밖으로 나가 방해받지 않는 편을 택하듯이, 상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시적으로 체험하는 동안 우울은 나로 하여금 줄곧 내 바깥에 있게 했다. [...] 우울 속에서 나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었다.³⁶⁾

우울과 비대한 상상력은 모두 아버지 미가엘의 유산이다. 미가엘이 어린 아들의 영혼에 채워 넣은 불안과 그 자신이 지녔던 끔찍한 우울은, 일찍부터 키에르케고어를 에워쌌던 인생의 어둔 배경이었다.³⁷⁾ 그가 가장 은밀한 내면성으로 끌어넣었던 그 세계는 감히 입 밖에 내거나 글로 표현한 적이 없을뿐더러, 단 한순간 떠올리는 것조차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키에르케고어가 『단계들』의 원고 작업으로 분주하던 1844년부터 수년간 대필과 교정을 맡았던 이스라엘 레빈(Israel Salomon Levin)은 언어학자이자 작가였다. 그에 따르면, 키에르케고어의 상상은 “바로 눈앞에서 이미지들을 본 것처럼 너무도 생생했다. 그는 마치도 정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다.”³⁸⁾ 레빈이 섬세한 편은 아니었음에도, 키에르케고어가 그에게 노골적으로 가장 섬뜩한 것을 떠올리게 해줬던 일들을 언급할 때는 전율하며 두려워했다. 동시대 배우였던 오토 싱크(Otto Zinck)의 증언은 키에르케고어의 상상의 세계와 관련하여 또 다른 빛을 던져준다. 지나는 길에 키에르케고어를 방문한 싱크는 디너파티 복장을 갖춰 입은 그에게 손님을 기다리는지 물었다. 키에르케고어의 대답은 배우인 그를 무색케 했다. “아니오. 나는 파티를 여는 일은 없소만, 때때로 파티를 열고 있다고 가장하고픈 생각이 들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내 상상의 손님들을 접대합니다.”³⁹⁾

오토의 일화는 미완성의 수기,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또는 모든 것은 의심돼야 한다. 어떤 이야기 Johannes Climacus, or De omnibus dubitandum est. A

36) JP V 5980 (Pap. VIII¹ A 27) n.d., 1847.

37) JP VI 6274 (Pap. IX A 411) n.d., 1848; JP V 6019 (Pap. VIII¹ A 177) n.d., 1847년 6월 9일.

38)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 291.

39)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p. 314-315.

Narrative』(1842-1843)에 묘사된 아버지와 아들의 상상의 산책과 연결된다. 주인공 클리마쿠스의 아버지는 그가 밖에 나가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의 손을 잡고 방안을 함께 거닐기를 제안했다.⁴⁰⁾ 방안을 거니는 동안 아버지는 초로의 나이임에도 빛나는 상상력으로 그가 본 모든 것을 묘사해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마차들을 보고, 상상의 행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장면은 클리마쿠스 뒤에서 복화술을 구사하는 키에르케고어의 유년을 그려준다. 확실히 이 그림은 그를 현실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자기 폐쇄로 유인한 성장환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고도로 계발된 상상력 자체가 자기 상실과 불행한 사랑의 근본 요인은 아닐 것이다.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키에르케고어가 그의 아버지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기 인생과 그 미래까지도 예단한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838년 일지에는, “갑작스럽게,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절대 확실한 새로운 원칙으로 그를 몰아넣은” ‘대지진(the great earthquake)’이 언급된다.⁴¹⁾ 그것은 아버지의 비밀, 과거의 죄에 대한 우연한 발견이 초래한 가공할 격변이었다. 일곱 형제의 막내로서 어머니와 다섯 형제, 자매의 죽음을 체험했던 키에르케고어는 ‘대지진’을 기점으로 과거의 죽음을 아버지의 죄과로,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에 미친다’는 이 사상은 “우리 가족 중 누구도 34살을 넘기기 못한다”⁴²⁾는 아버지의 확신과 함께 깊이 각인되어, 젊은 키에르케고어의 미래에 족쇄를 채웠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가망도 [...], 즐겁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 가정생활의 역사적 연속성에 본질적인 부분인 — 도 없이, 내면적

40)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p. 14-15;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 236 참조.

41) JP V 5430 (*Pap.* II A 805) *n.d.*, 1838을 볼 것. 대지진에 관한 논의는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의 큰 지진 체험 (『키에르케고어 연구』, pp. 30-49)을, 관련 연구 동향은 같은 책 p. 30 각주 1을 참조.

42) JP V 6003, Letters no. 149, 1847년 5월 19일.

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 때, 절망적인 자포자기 속에서 내가 오로지 인간의 지적인 면만 붙들고 거기에 매달렸기에, 나의 탁월한 정신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요, 이념들만이 내 기쁨이며, 사람들은 중요치 않았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랴.⁴³⁾

‘대지진’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사건은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⁴⁴⁾ 이 글을 쓰기 한 해 전인 1837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결혼 일 년 만에 발진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형 페더의 아내 마리(Elise Mrie)의 죽음⁴⁵⁾이고, 또 하나는 뢰어담(Peter Rørdam)의 집에서 이뤄진 레기네와의 첫 만남이다. 1838년 8월 아버지 미가엘과 사별하기 전부터 키에르케고어는 이미 9살 연하의 레기네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⁴⁶⁾ 작정한 대로, 그는 1840년 8월 레기네에게 구애했으며, 바로 두 달 뒤에 약혼했다. 그러나 약혼과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 무서운 충동이 시작됐다. 종교적 갈등도 컸지만, 가족의 불운을 알고도 결혼한다면 마리의 죽음은 곧 레기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병약한 그가 34세 전에 죽을 경우, 20대 초반에 미망인이 될 레기네의 불행은 불 보듯 뻔했다.⁴⁷⁾ 결국 1년 만에 파혼한 그는 레기네를 죽도록 괴롭혔다는

43) *JP* V 5431 (*Pap.* II A 806) *n.d.*, 1838.

44) 대지진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1835년 설’과 ‘1838년 설’이 있다.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의 큰 지진 체험」은 1835년 설에 입각하여 쓴 것이다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p. 30 각주 1 참조). 부친 미가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의 부록으로 수록된 표재명의 「생애와 저작 중 ‘아버지와 아들’ 편에 상세하게 언급된다. 최안 키에르케고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5), pp. 113-126.

45)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p. 111-118 참조.

46) *JP* VI 6472.

47) 키에르케고어는 평생 병약했으며 레기네와 약혼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의 매형 헨릭(Henrik Ferdinand Lund)이 브라질에 있는 고생물학자인 형 페더(Peter Wilhelm Lund)에게 보낸 1841년 4월 2일자 편지에는 “그(키에르케고어)의 흉부에 [...] 병이 나서 다시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고 쓰여 있으며, 조카 헨리에테(Henriette Lund) 역시 키에르케고어가 한 파티에서 피를 뱉은 일을 증언했다.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 430.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끊임없이 근본적인 불운을 상기했다.⁴⁸⁾ 이런 맥락에서 보면, 1845년에 “유죄냐?”/“무죄냐?”를 포함한 『단계들』을 끝으로 저술의 제 1군인 심미적 저술을 일단락 지은 것도 단명하리라는 그의 어둔 생각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⁴⁹⁾

그러나 아버지 미가엘의 우울한 환상(tungsindig Phantasie)은 빛나갔다. 1847년 키에르케고어는 35세 생일을 맞는다. 생일 2주 뒤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미 페더가 34세 됐을 때 크게 놀랐고, 이제 그 자신이 한계선을 넘어 35세가 됐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음을 고백한다.⁵⁰⁾ 이 일은 분명 ‘대지진’ 이래로 그를 지배해온 인생 전반에 대한 해석의 수정을 야기했을 터였다. 더욱이 이듬해인 1848년, 그의 존재(Væsen, (독)Wesen) 전체가 바뀌는 종교적 체험을 한다. 4월 19일 일지에는 “나의 은폐성(Skjulthed)과 폐쇄성의 침묵(indesluttethed)은 깨졌다 — 나는 자유롭게 말한다”⁵¹⁾고 기록되어 있다. 번역이 까다로운 덴마크어 ‘indesluttethed’는 자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밝히지 않는 경향, 또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의 개념』에서는 이 폐쇄성의 침묵이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된다.⁵²⁾ 가명 저자 하우프니엔시스에 따르면, “악마적인 것은 자신을 닫아 버리기 원하는 부자유다. 악마적인 것은 [...]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폐쇄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존에 관한 심오한 것, 바로 부자유가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든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다.”⁵³⁾ 1848년의 부활절 체험은 바로 이 부자유로부터 키에르케고어를 해방시켜 주었다.

48) JP V 5999.

49) 최안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관점』,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p. 289.

50) JP V 6003 참조.

51) JP V 6131 (Pap. VIII¹ A 640) n.d., 1848년 4월 19일.

52) Søren Kierkegaard,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123, p. 126, 『불안의 개념』, 임규정 옮김 (한길사 1999), p. 331, p. 337 참조. * 이후 CA, 쪽수(우리말 번역본 쪽수)로 표기.

53) CA, p. 124(332).

물론 그의 폐쇄성의 침묵이 그날로 단번에 깨진 것은 아니다.⁵⁴⁾ 그렇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성(spontaneity) 혹은 직접성(immediacy, Umiddelbarhed) 없이, 무서운 우울로 인생을 시작했던”⁵⁵⁾ 키에르케고어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안겨 주었다. 말하자면, “반성 뒤에 오는 자연성인 믿음”을 얻음으로써, “스스로 체념 가운데 살면서, 상상을 매개로 모든 것을 제시했던”⁵⁶⁾ 시인이요 철학자인 그에게 이제 삶이 더 가까이 접근하는, 아니 그가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자신이 되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더불어 그가 “내 몸의 가시”⁵⁷⁾라고 부른 아버지에 관한 정신적 고뇌와 사랑하는 소녀(레기네)와 관련된 깊은 슬픔을 통찰하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의 조그만 상상력의 부스러기를 혼동하는 절망으로부터 돌아선다.

4. 고백: 깊은 물속으로부터의 탄식, 심리학적 실험

폐쇄성의 침묵이 깨진 체험의 가시적 결과는 1848년을 기점으로 직접전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로 키에르케고어 저술의 제2군으로 불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비롯한 종교적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시는 ‘불행한 사랑’을 변주하는 가명의 심미적 저술은 쓰이지 않았다. 1850년 『일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간접전달이 직접전달에 비해 낮은 차원의 전달방식이라고 말한다.⁵⁸⁾ 왜냐하면 간접성(indirectness)은 애초에 그의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치 않았고, 그 때문에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결국 간접전달에 의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형성되고 발전됐기에, 스스로가

54) JP V 6133 (Pap. VIII¹ A 645) n.d., 1848년 4월 24일 참조할 것.

55) JP V 6135 (Pap. VIII¹ A 650) n.d., 1848년.

56) JP V 6135.

57) JP VI 6906 (Pap. VI¹ A 484) n.d., 1854. ‘육체에 가시(my thorn in the flesh)’는 신약 성서의 고린도 후서(12:7)에서 사도 바울이 쓴 잘 알려진 표현으로, 육체를 괴롭히는 치명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킨다.

58) JP VI 6700 (Pap. x³ A 599) n.d., 1850.

59) JP V 6248 (Pap. IX A 265) n.d., 1848; 6700.

자신은 교사가 아니며 저술 자체가 자기교육임을 강조했다.⁶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키에르케고어로 하여금 자기를 ‘너’라고 부를 수 없도록 막은 것은 그의 우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울은 간접전달의 숨은 동기다. 그러나 간접전달이 하나의 소통이며 자기교육인 한, 그것은 폐쇄성의 침묵을 깨뜨리는 자기 생성의 운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와 연관된 중요한 요점이기에 보다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타키투르누스는 그의 심리학적 실험의 주인공 퀴담을 가리켜 “그의 폐쇄성의 침묵은 본질적으로 우울(Tunsind)의 한 형태”⁶¹⁾라고 말한다. 여기서 폐쇄성의 침묵과 우울 사이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다. 또한 폐쇄성의 침묵은 불행한 사랑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폐쇄성의 침묵은 결혼에서의 윤리적 헌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⁶²⁾ 퀴담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파혼을 택한다. 키에르케고어 역시 비밀을 갖는 것은 레기네를 아내가 아닌 첩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럴 바에는 그녀를 죽이는 편이 낫다고 여길 정도였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아버지의 우울, 자기 안에 나직이 깔린 영원한 밤, 그의 탈선, 욕정들과 방탕을 그녀에게 폭로할 수 없었다.⁶³⁾ 그가 1848년의 종교적 체험의 기록에 덧붙여 썼듯이, 레기네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우울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이다.⁶⁴⁾ 그렇기는 하지만, 폐쇄성의 침묵이 레기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속죄와 화해를 이루려는 그의 열망을 막지는 못했다. 이 열망은 간접 전달에서 그 출구를 찾는다. “내가 작가가 된 것은 그녀, 나의 우울 그리고 내 돈 덕분이었다”⁶⁵⁾고 한 키에르케고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의 우울이 아니었다면 레기네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저술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풍족한 유산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책을 자비로 출판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일찍 죽을 것을 예상

60) *JP* VI 6530 (*Pap.* x² A 192) *n.d.*, 1849; 6700.

61) *SLW*, 427.

62) *SLW*, 부록 p. 615.

63) *JP* V 5664.

64) *JP* V 6132 (*Pap.* VIII¹ A 641) *n.d.*, 1848년.

65) *JP* V 6132.

하고 생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저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세평(世評)에 구애됨 없이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 가명을 통한 전무후무의 간접전달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돈이 여건이고, 레기네가 외적 계기라면 그의 우울은 간접전달 배후의 부정적 동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울이 왜 부정적 동기인가? 가르프 같은 학자는 키에르케고어의 글쓰기가 “정신적 외상(trauma)의 추방 곧 ‘제거’의 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⁶⁶⁾ 말하자면 그 스스로 글을 씀으로써 하우프니엔시스가 제시한 폐쇄성의 침묵으로부터의 구체책을 실천한 셈이다. 하우프니엔시스에 따르면 “언어는, 말은, 바로 ‘폐쇄성의 침묵’의 공허한 추상으로부터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 언어는 사실상 의사소통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이처럼 키에르케고어는 자기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폐쇄성의 침묵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자 했다. 가르프가 지적한 대로, 그는 실명의 일지에서보다, 오히려 가명의 저술들에서 자신과 직결된 문제들에 근접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솔직하게 썼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비웠다.⁶⁸⁾ 이 비움은 다른 어떤 저술에서 보다 그가 ‘실험’이라고 부른 「“유죄냐?”/“무죄냐?”」에서 극대화됐다. 이 실험의 파격성은 레기네에게 보냈던 이별 편지 전문이 그대로 실렸을 정도로 실제 파혼 사건과 근접하다는 데 있다. 시기적으로는 이것이 불행한 사랑을 다룬 마지막 심미적 저술이 됐으나, 이미 파혼 후 일 년 반이 지난 1843년부터 구상된 것이다.

절대 약혼하지 말았어야 했겠지만, 약혼한 순간부터 나는 레기네를 정직하게 대했다. 심미적이고 기사도적인 의미에서 그녀가 나를 사랑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그녀를 사랑했다. [...] 이제 “유죄냐/무죄냐”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66)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 352

67) CA, p. 124(333) 덴마크어 ‘communicere(kommunikere)’는 ‘의사소통하다’, 혹은 ‘(그리스도교의) 성찬식에 참여하다’와 같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하우프니엔시스가 ‘악마적인 것’의 부자유와 대조하여, “자유는 항상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종교적 의미를 감안하고 있다. CA, p. 124(332, 각주 22 참조).

68) Joakim Garff, *Søren Kierkegaard*, p. 363.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을 담게 될 텐데, 지난 일 년 반 동안 개인적으로 모든 소설들을 다 합쳐 거기에 담긴 것 보다 더 많은 시(poetry)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시적으로 발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⁶⁹⁾

키에르케고어는 애초에 「“유죄냐?”/“무죄냐?”」를 발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또한 1843년 7월경에 레기네와 슬레겔의 약혼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유혹자의 일기」 같은 속임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문학적 차원에서도, 쿨담의 일기는 고백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지며 주제의 범주 또한 판이하다. 『단계들』이 출판된 1845년의 한 일지에 따르면, “여기서는 죄의 범주들이 사용된다. 그(쿨담)의 폐쇄성의 침묵은 그가 수난 당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감히 알리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한다.”⁷⁰⁾ 또 이 글에 딸린 여백의 메모는, 비밀을 밝히면 폐쇄성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녀(콰이담-레기네)를 완전히 파멸 시키거나, 동정을 불러일으켜 그를 따르게 함으로써 불행에 빠뜨릴까봐 침묵하려는 쿨담-키에르케고어의 고뇌를 보여 준다.⁷¹⁾ 사실 「“유죄냐?”/“무죄냐?”」는 폐쇄성의 침묵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에 대해 침묵한다. ‘침묵의 형제’를 뜻하는 가명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는 비록 독자 대부분이 중도에 읽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냐?”/“무죄냐?”」는 레기네를 향한 키에르케고어의 탄식 같은 고백이다.⁷³⁾ 앞서 언급한 1845년 일지에는, 심리학적 실험의 저자명

69) JP V 5664.

70) JP V 5801 (Pap. VI A 31) n.d., 1845.

71) JP V 5802 (Pap. VI A 32) n.d., 1845.

72) 「“유죄냐?”/“무죄냐?”」는 300쪽이 넘는 긴 분량 외에도,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탓에 연구자들조차 완독이 어려운 텍스트로 손꼽힌다. 키에르케고어 자신도 이 책의 독자가 많지 않을 것을 예상했으며 (JP V 5824 (Pap. VI A 79) n.d., 1845), 쿨담의 일기 뒤에 붙인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나의 독자여 —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필시 아무도 남아 있지 않으려만” (SLW, 485).

자리에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 대신 “깊은 물속으로부터 (by ... de profundis)”가 적혀 있다. 이 말은 구약성경의 시편 130편 첫 구절,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From the depths** of my despair I call to you, Lord)의 라틴어 역에서 따온 것이다.⁷⁴⁾ 즉 ‘깊은 물속에서’는 심리학적 실험의 원천을 지시한다. 퀴담의 일기는 타키투르누스가 호수에서 건져 올린 상자에서 발견됐으며, 그가 단단히 밀봉된 ‘장미목 상자’를 억지로 열었을 때 열쇠는 안에 있었다. 그는 말

73) 『단계들』보다 하루 앞서 출판된 설명의 강화집 『가상의 의식들에 관한 세 개의 강화 Three Discourses on Imagined Occasions』는 『단계들』의 주석이라고 일컬어진다. 사죄(赦罪) 의식 (the consciousness of the forgiveness of sin)을 확인하는 이 강화집은 세 부분, 곧 「고백 의식에 관하여 On the Occasion of a Confession , 「결혼식에 관하여 On the Occasion of a Wedding , 「무덤 옆에서 At a Graveside 로 구성되며, 3부로 된 『단계들』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두 저술의 2부, 「결혼식에 관하여」와 「결혼에 관한 약간의 성찰 이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1부와 3부는 그렇지 않다. 독일어 전집의 편집자 히어쉬(Emanuel Hirsch)는 양자가 순차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았다가, 후에 역순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즉 『단계들』의 1부 「술에 진실이 있다 In Vino Veritas 와 「무덤 옆에서 가, 3부 「“유죄냐?”/“무죄냐?” 와 「고백 의식에 관하여 가 대응 쌍임을 알아차렸다. 이 해석에 대해, 흥 부부는 후자의 방식으로 볼 때 강화집의 각 부분이 상응하는 『단계들』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해석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 (SLW, Historical Introduction, xi). 그러나 뒤에 영역된 *Three Discourses on Imagined Occasions*의 역사적 소개에서는 순차적 대응을 고수한다. (Søren Kierkegaard, *Three Discourses on Imagined Occasions*,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Historical Introduction, x 참조) 킬리(Louise Carroll Keeley)는 “전체 설명이 죄의 용서로 기우는” 키에르케고어의 강조(SLW, 644)를 고려하여, 「“유죄냐?”/“무죄냐?”」와 「고백 의식에 관하여」의 대응을 타당하게 본다. (“Living the Possibility of a Religious Existence: Quidam of Kierkegaard’s Stages on Life’s Way”, in: Robert L. Perkins [ed.],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1): *Stages on Life’s Way*, p. 208, 각 주 25 참조).

74)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s Journals and Notebooks, vol. 2: Journals EE-KK*, ed. Bruce H. Kirmmse, K. Brian Soderquist, Niels Jørgen Cappelorn, Alastair Hannay, David Kangas, Vanessa Rumble, and George Pattis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 537-538.

한다, “폐쇄성의 침묵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내부로 향해 있다.”⁷⁵⁾ 그리고 자신이 깊은 물속에서 끌어올린 것이 실은 ‘저 밑으로부터의 탄식’이었음을 깨닫는다. ‘퀴담의 일기’는 ‘깊은 물속으로부터의 탄식(a sigh de profundis)’, 곧 그가 역지로 그 비밀을 강탈한 까닭에 폐쇄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온 탄식이었던 것이다.⁷⁶⁾

우리는 일기를 담은 ‘장미목 상자(a box made of palisander wood)’가 레기네의 ‘키 큰 장미목 장’을 상징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알다시피, 그 장에 간직된 것들은 “레기네를 회상케 하고 또 그녀에게 키에르케고어를 떠올리게 할 만한 것”, 즉 불행한 사랑의 메멘토(memento)였다. 퀴담의 장미목 상자 안에 유폐된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보석들, 특히 다이아몬드 십자가는 파혼 후 키에르케고어가 레기네에게서 돌려받은 약혼반지의 다이아몬드 원석 부분을 십자가 모양으로 변형한 것이다.⁷⁷⁾ 한 송이 시든 장미⁷⁸⁾ 역시 두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념물이다. 그렇다면 ‘실험’이 키에르케고어의 실제 삶의 재생일까? 상상의 구성이 실화인지 아닌지, 실제의 어떤 것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타키투르누스의 답을 참조하자면, “그렇다. 분명히 이것은 실제적인 무엇, 소위 범주들에 기초하고 있다.”⁷⁹⁾ 즉 실험의 퀴담은 우울의 형태인 범주를 통해서 사고하는 인물로서 본질적으로 폐쇄성의 침묵을 형상화한 하나의 극단적 전형이다.⁸⁰⁾ 그는 폐쇄성의 침묵이 억제한 것을 결코 발설하지 않으며, 자신을 묶고 있는 것에 대해 이름 지을 수도 없다.⁸¹⁾ 그의 인생관은 자신의 폐쇄성의 침묵 속에 그의 우울을

75) *SLW*, 189.

76) *SLW*, 188-189.

77) *SLW*, 190; Joakim Garff, *Kierkegaard's Muse*, p. 103 참조.

78) *SLW*, 190. 키에르케고어가 1841년 5월 5일 자신의 생일에 손수 만든 문갑을 선물한 레기네에게 보낸 편지에 ‘시든 장미’를 함께 보낸다는 구절이 있다.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 Letters and Documents*, trans. Henrik Rosenmei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84-85. 편지 전문의 우리말 번역은 다음을 참조할 것.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pp. 297-299.

79) *SLW*, 445; *JP* V 5724 (*Pap.* V B 148:29) *n.d.*, 1844.

80) *SLW*, 629 (*Pap.* V B 153 *n.d.*, 1844), 630 (*Pap.* V B 148:25 *n.d.*, 1844).

81) *SLW*, 630 (*Pap.* V B 148:29 *n.d.*, 1844).

감추려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다.⁸²⁾ 퀴담은 말한다.

나의 병이 무엇인가? 우울. 이 병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상상력 속에.
상상력의 양식(糧食)은 가능성이다. 그러나 영원성은 가능성을 찾아간다.⁸³⁾

퀴담은 키에르케고어 자체를 재현한 것도, 그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그는 키에르케고어 내면의 악마적인 것, 곧 폐쇄성의 침묵의 범주에 기초한다. 요컨대 심리학적 실험은 키에르케고어 내면의 관찰자 타키투르누스가 폐쇄성의 침묵 안에 갇힌 또 다른 자아인 ‘어떤 이(quisdam)’로부터 강탈하다시피 얻어낸 (wrested) 비밀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타키투르누스는 “종교적인 것으로 정향된 악마적 인물”⁸⁴⁾ 퀴담을 창조한다. 그 자신은 종교적이지 않지만, 관찰의 기쁨으로 단지 상상적 구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⁸⁵⁾ 키에르케고어 편에서 보면, 실험은 ‘폐쇄성의 침묵’과 ‘고백의 투명성’의 대립 속에서 악마적인 것으로부터 종교적인 것으로 향하는 변증법적 운동의 수행이다. 실험하는 관찰자와 실험 속의 실존하는 개인의 관계 설정은 이 같은 운동을 가능케 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험자 타키투르누스가 보기에, 직접성의 언어는 모음들을 갖춘 언어처럼 쉽게 발음할 수 있지만, 폐쇄성의 침묵은 묵음이거나 기껏해야 하나의 모음 앞에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자음이 있는 것과 같다⁸⁶⁾ 이 발성 불가능 상태가 바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오직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퀴담의 현주소다. 때문에 타키투르누스는 퀴담의 폐쇄성의 침묵을 밝혀주고자 그가 표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항목들을 일기 속에 삽입했다.⁸⁷⁾ 이 삽화들은 키에르케고어의 일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

82) *SLW*, 394.

83) *SLW*, 394.

84) *SLW*, 398.

85) *SLW*, 445.

86) *SLW*, 427.

으로, 실험의 깊은 동기들 즉, 아버지에 대한 그의 관계, 그의 인격의 어둔 면, 우울의 뿌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실마리들이다. 이제 이 실마리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I. 발성: 「“유죄냐?”/“무죄냐?”」의 여섯 개의 삽화들

‘발성(vocalization)’은 히브리어나 아라비아어처럼 모음부가 생략된 언어에서의 모음 삽입을 뜻한다. 키에르케고어의 가명 저술과 실명 저술(그리고 일지와 노트들)의 변증법적 이중 구조는 얼마간 자음과 모음의 관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발성’은 그의 저술 해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개념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초안용 공책 중 하나에 『불안의 개념에 관하여』를 위한 발성⁸⁸⁾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그리고 곁장에 굵은 글씨로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말하라(loquere ut te videam)”는 라틴어 문구를 적어 놓았다. 이 노트에는 『불안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세대 관계의 무시무시한 결과의 사례들이 열거된다. 어머니가 트롤(troll)과 관계하여 낳은 기형적 존재인 회네(Høgne), 악마 로베르(Robert le Diable), 몽마(夢魔) 인큐버스(incubus)와 아름다운 여인 사이에 태어난 마술사 멀린(Merlin the Magician), 셸리(P.B. Shelly)의 『첸치 일가 The Cenci』에서 딸 베아트리체를 강간하여 살해당한 첸치 등 문학적 예들과 범죄의 목록들, 즉 아이에게 대물림된 주정뱅이 부모의 중독, 도벽, 비정상적 범죄, 우울증, 특정한 나이에 발현되는 광기 등이 그것이다.⁸⁹⁾ 이 사례들은 『불안의 개념』의 의미를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발성하도록 하는 구체적 예시들이며, 뒤를 잇는 다섯 번째 발성은 「“유죄냐?”/“무죄냐?”」의 세 번째 삽화와도 연관성을 지닌다.

87) *SLW*, 429.

88) *JP V 5714 (Pap. V A 102) n.d.*, 1844.

89) *JP V 5714; JP V 5716 (Pap. V A 103) n.d.*, 1844.

어떤 부자(父子) 관계, 아들은 근본 뿌리에서부터 일체의 것을 은밀하게 발견하지만 감히 털어놓지 못한다. 그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독실하며 강인하다. 그가 술 취했을 때 단 한 번, 가장 무시무시한 일을 암시하는 몇 마디 말을 흘렸다. 아들은 그 이상 캐내지 않으며, 아버지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감히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⁹⁰⁾

이 기록은 키에르케고어의 ‘대지진’ 사건을 연상케 한다. 또한 세대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죄냐?”/“무죄냐?”」의 여섯 개 삽화들을 관통하는 주제다. 집중하지 않을 경우, 방대한 일기에 삽입된 이 단편들은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분석해보면 대단히 정교하게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식적으로 퀴담의 일기는 이중성(duplexity)을 띤다. 전체 기간은 1월 3일에 시작되어 7월 7일로 끝나고, 아침 일기와 밤 일기로 구분된다. 매번 ‘일 년 전 오늘’로 시작하는 아침 일기는 약혼에서 파혼에 이르는 과거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를 되짚는 회상⁹¹⁾인 반면, 밤 일기는 현재 시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관념성을 침투시켜 다루는 실제 현실이다. 전자는 환영에 속한 것으로 심미적 관념성이고, 후자는 환영적 기대가 아닌 현실성에 뒤따르는 자유의 행위로서 종교적 관념성을 나타낸다. 이 차이가 바로 이중성이다.⁹²⁾ 한편, 7월 7일 마지막 일기에는 “1월 3일 불안이 다시 시작된다. [...] 불안의 시간은 반 년, 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거듭 돌아오는 그 현실성의 반년”⁹³⁾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퀴담의 일기가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로 한없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섯 개의 삽화는 이 순환운동을 야기하는 불안의 원천을 조명하고 발성을 돕는 모습들이다. 우선, 삽입 편들은 밤 일기에 포함되는데 이는 환영이 아닌 현실성에 귀속된 것임을 함축한다. 동시에 별개의 제목을 가진 독립적 이야기로서 일기의 일인칭 시점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퀴담이 말하지 않는 퀴담을 설명하는

90) *JP* V 5716 (*Pap.* V A 103) *n.d.*, 1844.

91) *SLW*, 422.

92) *SLW*, 422-423.

93) *SLW*, 396.

난외주(欄外註)와 같다. 구조적으로, 7월 5일을 제외한 나머지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일에 삽화들을 배치한 것은 5월 5일생인 키에르케고어의 생일과 일치된 것으로, 양자 간의 근원적 연관성을 암시해 준다.

1월 5일의 “말없는 절망(Quiet Despair)”⁹⁴⁾은 아버지와 아들의 거울관계를 주제화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자신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장래의 자신을 본다. 어느 날 아버지는 불안에 떠는 아들에게 말한다. “불쌍한 아이야, 너는 말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구나.” 두 사람은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었으며, 서로가 상대의 우울을 초래했다고 믿었다. 노인이 된 아들은 고독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위로한다. 이 삽화는 부자간의 유사성, 대물림된 우울의 유전적 뿌리를 말해 준다.

2월 5일의 “나병환자의 자기-관찰”⁹⁵⁾은 희곡 형식의 글로서 무대는 동틀 녘 무덤들 사이다. 돌 위에 앉아 잠들었던 나병환자 시몬이 깨어나서 외친다. “시몬! - 예! - 시몬! - 예, 누구십니까? - 시몬, 어디에 있나? - 여기요 - 누구와 얘기 하고 있지? - 내 자신과 [...]” 섬뜩한 도입부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덤 사이에 홀로 숨어 있는 나병환자 시몬을 보여 준다. 그는 피부의 모든 발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고약을 만들었고, 그 사용법을 다른 나병환자 므낫세에게 가르쳤다. 그 고약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며, 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므낫세는 기뻐하며 도시로 돌아났다. 그는 생명을 미워하고 인간을 저주하여 복수를 원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어는 1848년 일지에, ““한 나병환자의 자기-관찰”이라 이름 붙일 뭔가를 씌으로써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음울한 생각들과 사악한 기분(black moods)을 없애고자 노력할 것”⁹⁶⁾이라고 썼다. 여백에는 두 나병환자에 대한 구상이 적혀 있는데, 하나는 동정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으려고 숨기를 원하지만, 다른 하나는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복수하기를 원한다. 동정적 나병환자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들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 온 가족이 나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⁹⁷⁾

94) *SLW*, 199-200.

95) *SLW*, 232-234.

96) *JP* V 5666 (*Pap.* IV A 110) *n.d.*, 1843.

삽화의 시몬은 마태복음(24:6)에서, 므낫세는 구약 열왕기하(21:1-18)에서 유래한다. 시몬은 나병환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와 함께 식사하지만, 우상숭배자인 유다 왕 므낫세는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심판을 부른다. 두 인물은 드러난 전염성과 안 보이지만 더 파괴적인 전염성을 상징하며, ‘전염’이라는 주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심판 받는다는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을 변주한다. 폐쇄성의 침묵은 모든 발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고약처럼 타인에게 한층 위협적이다. 상대를 보호하려면 병을 노출하고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 퀴담-키에르케고어처럼 폐쇄적 침묵과 고립을 택할 경우, 오해는 불가피하다. 또, 희생자이자 잠재적 가해자인 나병환자의 입장에서 죄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불안을 일으키는 반면, 전적인 죄 인정과 회개는 한층 어려워진다.⁹⁸⁾

3월 5일 “솔로몬의 꿈”은 『불안의 개념』의 다섯 번째 발성의 부자관계와 연결된다. 성경에서 떼어낸 다윗과 솔로몬 부자에 관한 상상적 삽화에서 솔로몬은 한밤중 다윗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에 잠을 깬다. 영적으로 부서진 참회자 다윗을 목격한 솔로몬은 꿈을 꾸다. 꿈속의 다윗은 하나님에게 거 부당한 불경건한 자이며, 그의 왕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불경건한 죄인이라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 여파로, 그는 지혜로워졌으나 영웅이 되지 못했고, 전도자였으나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으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은 돕지 못했고, 관능적 인간일 뿐 참회자는 될 수 없었다. 이 삽화는 청년 키에르케고어를 방황으로 이끈 ‘대지진’의 충격, 즉 가장 사랑하고 감사할 대상인 아버지의 치부를 발견한 데서 오는 수치심, 차마 대면할 수 없어 등 돌려야 했던 관계 단절의 고통을 암시한다.

4월 5일 “가능성”⁹⁹⁾은 가장 긴 삽화로 한 회계원(bookkeeper)의 이야기다. 그는 젊은 시절 만취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에게 이끌려 매음굴에 갔으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후 열병으로 사경을 헤맸을 때, 자신의 순결을 상실케 한 그 사건이 뚜렷한 형태로 회상 속에 나타난다. 회복된 후, 그는 세상 어딘가에 그로

97) JP V 5667 (Pap. IV A 111) n.d., 1843.

98) 회개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퀴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SLW, 450-452을 참조할 것.

99) SLW, 276-288.

말미암은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강박되어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다. 이와 관련된 1843년 일지는 돌아다니면서 모든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는 어떤 정신이상자를 묘사한다. 그는 한 여자를 임신케 한 적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며, 이제 그 아이를 찾고자 한다.¹⁰⁰⁾ 타키투르누스는 여섯 개의 삽화 가운데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이것이 퀴담에게 중요한 범주라고 말한다.¹⁰¹⁾ 가능성의 견지에서, 사람은 종교적 투명성을 향해 투쟁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퀴담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모른다.¹⁰²⁾ 오히려 상상력에 뿌리박고 그 힘으로 연명하는 가능성 안에 머물기를 더 좋아한다. 사실 가능성처럼 무서운 유혹자는 없다. 상상된 죄, 열병이 가져온 꿈에 시달리던 회계원에게 정작 죽음이 찾아오고, 실제로 영원성의 무시무시한 다리로 나아가야 했을 때,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¹⁰³⁾ 아이들의 얼굴에 대한 회계원의 집착, 자녀들이 34세를 못 넘기리라는 미가엘의 우울한 환상, 콰이담을 버림으로써 양심상의 살인을 범했다는 퀴담의 죄책감은 현실이 아닌 일어날지 모를 가능성에 근거한다. 그들은 폐쇄성의 침묵 속에 죄의 현실성을 은폐함으로써 회개의 대상을 상실한다. 타키투르누스는 퀴담이 자신을 회개로 이끌 수 없는 까닭에 심미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갇혀 있다고 설명한다.¹⁰⁴⁾ 퀴담은 자신의 죄의 대상(object)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유죄를 확실하게 가정할 수가 없다. 때문에 실제로 회개를 시작하는 대신, “유죄냐/무죄냐”하는 죄와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장난친다.¹⁰⁵⁾

5월 5일 “읽기 수업: 페리안드로스(Periander)”¹⁰⁶⁾의 페리안드로스는 코린

100) JP V 5691 (*Pap.* IV A 147) *n.d.*, 1843.

101) *SLW*, 429.

102) *SLW*, 428.

103) *SLW*, 288.

104) *SLW*, 447.

105) Stewart, J., Emmanuel, S. M. & McDonald, W.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p. 150.

106) *SLW*, 323-328.

토스의 왕으로 그리스의 7현인(七賢人)에 들 만큼 현자였지만 폭군이기도 했다. 그의 말은 지혜로웠으나 그의 행동은 광기로 가득했다. 삽화는 페리안드로스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담을 수 없는 ‘두 사람-현인이면서 폭군-이 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는 친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서 죽이기도 했다. 두 아들 중 동생 리코프론(Lycophron)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버지임을 듣고 침묵으로 저항한다. 이 삽화는 미가엘-쇠안, 다섯 번째 발성의 아버지-아들, “솔로몬의 꿈”에서의 다윗-솔로몬의 관계에 공통된 모티프들, 곧 아버지의 양면성과 아들에 의한 죄과의 우연한 발견의 모티프를 반복한다. 또한 리코프론을 비롯하여 모든 아들이 페리안드로스보다 먼저 죽은 사실로써 후대에 미친 선대의 죄의 파괴력과 심판을 예시한다.

6월 5일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¹⁰⁷⁾는 성경의 절(verse)과 같은 41개의 절로 구성된 글이다. 구약 다니엘서(4: 19-37)에 기록된 불가사의한 사건을 시적으로 재구성한 마지막 삽화는 자신이 꿈대로 들짐승으로 변했던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회고담이다. 1843년에 기록된 일지의 구상에는 “내 인생의 회상, 공식적으로는 황제, 최근에는 소(ox), 네부카드네자르 씸”¹⁰⁸⁾으로 되어 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됐고 이후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으로 전락한다. 아무도 네부카드네자르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의 말은 사람들 귀에 짐승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7년 후, 다시 왕좌로 돌아온 그는 모든 현인을 불러 모아 자신을 덮쳤던 힘의 비밀과 그가 들의 짐승처럼 됐던 까닭을 해석하도록 한다. 현인들은 한낱 환상이며 악몽이라고 대답할 뿐 비밀을 밝히지 못한다. 하나님과 직접 마주했던 아브라함처럼,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까닭에 자기 체험을 소통할 수 없다. 늘 두 사람이었고, 비인간적 괴물이었던 페리안드로스의 외적 표변과 달리, 신적 권능에 의해 짐승이 됐다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네부카드네자르의

107) *SLW*, 360-363.

108) *JP V 5671 (Pap. IV A 119) n.d.*, 1843.

변형은 내면적인 것이다. 아무도 볼 수 없고, 관찰할 수도 없는 주(Lord)를 알게 되자, 그는 자기 군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그 권능 앞에서는 바빌론의 명성도 헛될 뿐임을 깨닫는다. 그는 말한다. “나,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더 이상 네부카드네자르가 아니다.”¹⁰⁹⁾ 마지막 삽화에는 세상의 지혜와 명성이 전능자에 대한 지식 및 신적 권능과 대조를 이루며, 짐승으로 전락했던 한 인간의 실존적 변형이라는 주제가 출현한다. 종교적 특징이 두드러진 이 삽화는 심미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경계에 간혀 고백-회개-용서의 단계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귀담이 자신의 인간적 지혜가 아닌 외적인 힘, 곧 신적 권능에 의해서만 실존적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V. 나가는 말

키에르케고어는 자기 인생에 전환점이 된 두 가지의 충돌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는 관능적 충돌(erotic collision)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의 충돌(collision with the world)이다.¹¹⁰⁾ 전자는 레기네와의 파혼 사건을, 후자는 콜사르 사건(The Corsair Affair)을 가리킨다. 그는 이 충돌들이 ‘상승작용(potential)’¹¹¹⁾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상승작용은 충돌들에다 그를 위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일시에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인 독특성을 깨닫도록 그를 이끌어 갔다. 첫 번째 관능적 충돌이 지닌 상승작용은, 진정한 사랑을 허물어지게 만든 것이 두 사람과

109) *SLW*, 362, 32절.

110) *JP V 6385 (Pap. X¹ A 260) n.d.*, 1849.

111) 키에르케고어는 심미적 소논문 『위기 및 한 여배우의 생애에 있어서의 위기 *The Crisis and a Crisis in the Life of an Actress*』 (1848)에서 예술가의 변모와 관련하여 상승작용에 관해 논한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유영소, 「예술가의 변모(metamorphosis)에 관한 고찰 - *The Crisis and a Crisis in the Life of an Actress*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제50집 (2017), pp. 163-194 (DOI: 10.17527/JASA.50.0.06), pp. 182-184.

별개의 어떤 다른 힘이나 그와 단절된 레기네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관능적 고통 외에 불행에 빠트린 레기네에 대한 연민의 고통을 느꼈고, 그렇게 된 것이 결국 그의 우울과 지난날의 일탈에 대한 뉘우침 때문이었기에 갑절로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

또 다른 충돌은 그가 심미적 저술을 일단락 짓고 모든 가명 저술의 저자가 자신임을 공개했던 1845년에서 46년 사이에 일어났다. 1845년 12월 22일 키에르케고어와 코펜하겐 대학 동문인 뮐러(Peder Ludvig Møller)가 『단계들』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모욕적 의도가 농후한 글을 발표하면서 충돌이 야기됐다. 당시 덴마크에서 최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던 풍자지 『콜사르』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뮐러와의 지상(誌上) 논쟁은 키에르케고어 개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인신공격으로 비화됐다. 키에르케고어는 그의 가는 다리와 양 길이가 다른 바지를 희화한 『콜사르』의 연속 풍자화의 여파로 온 덴마크의 웃음거리가 됐으며, 산책길에서 조무래기들이 뒤따라 붙어 놀려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도피하지 않고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온갖 수난을 감수했다는 점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이 그의 삶의 충돌 속에서, 거기에 항상 수반됐던 “영적 시험(Anføgtelse, spiritual trial)”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¹¹²⁾

“영적 시험은 나 자신이 행동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나는 스스로 결단력 있는 걸음을 내디더야 한다. 즉, 나 스스로가 고난에 나를 노출해야 한다. 이 자발적인 운동이 바로 [...] 영적 시험이 된다. 나의 충돌이

112) JP V 6385.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행동’과 ‘시험’으로 옮긴 ‘Anføgtelse’의 의미는 『공포와 전율』의 아브라함에 관한 다음 인용문에 의해 분명해 진다. (* 인용한 한글판은 ‘Anføgtelse’를 ‘유혹’으로 번역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행동함으로써 윤리적인 것 전부를 밟고 넘어갔다. 그리고 한층 높은 텔로스를 윤리적인 것의 바깥에 가졌고, 이 텔로스와 관계에 있어서 그는 윤리적인 것을 정지시켰다. [...] 유혹(Anføgtelse)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윤리적인 것 그 자체가 유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아브라함)를 방해한다. 의무란 하나님의 뜻의 표현, 바로 그것이다” (FT 59(100-101)).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충돌 혹은 하나님과의 투쟁 또한 존재한다.”¹¹³⁾

그는 레기네와 헤어진 후 엇나가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가 행동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대중잡지에 의해 공격당한 ‘한 사람’이 됐을 때, 키에르케고어는 동시에 “그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면 그 목이 부러질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콜사르』의 대표 골드슈미트(Meir Aron Goldschmidt)는 잡지사 문을 닫았고, 필러는 덴마크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해외를 전전하다 생을 마감했다.

이 충돌의 상승작용은 하나의 역설이며, 이 역설이야말로 키에르케고어의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파혼은 보통 사람에게는 관계 단절이다. 그러나 그는 파혼 후에 레기네를 자기 역사 속으로 데려갔다. 약혼녀를 기만한 악당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사회적 매장이다. 그러나 그는 저술가로 탄생했다. 우울은 보통 사람에게 질병이다. 그러나 그는 우울로부터 창조력을 길어냈다. 폐쇄성의 침묵은 보통 사람에게 소외의 감옥이다. 그러나 그는 폐쇄성의 침묵을 간접전달로 바꿨다. 따라서 간접전달이나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가 우울, 폐쇄성의 침묵, 아버지와의 관계와 불행한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의 결론일 뿐이다. 키에르케고어에게는 악마적이고, 부정적인 온갖 동기들과 모순되는 어떤 힘, 충돌 속에서 주체적 행동으로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는 상승작용이 존재했다. 따라서 본고는 2장 4절에서 언급했던 폐쇄성의 침묵과 고백의 투명성의 상호 모순된 변증법적 동기, 혹은 유사한 여러 대립 쌍의 변증법적 동기가 심리학적 실험을 이끌어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아마도 키에르케고어는 한때 왕이었다가 신적 권능에 의해 들짐승으로 추락했고, 결국에는 왕도 짐승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된 네부카드네자르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113) JP V 6385.

* 논문투고일: 2020년 4월 14일 / 심사기간: 2020년 4월 15일-2020년 5월 15일 / 최종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16일.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된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의 약어는 각 저술 제목 앞, 괄호 표기를 참조.

최안 키에르케고어,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5.

_____,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표재명 옮김, 프리칭아카데미 2005.

유영소, 「예술가의 변모(metamorphosis)에 관한 고찰 - *The Crisis and a Crisis in the Life of an Actress*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제50집, 2017, pp. 163-194 (DOI: 10.17527/JASA.50.0.06).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지성의 샘 1995.

Garff, Joakim, *Søren Kierkegaard: A Biography*, trans. Bruce H. Kirmms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_____, *Kierkegaard's Muse: The Mystery of Regine Olsen*, trans. Alastair Hanna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Kierkegaard, Søren, *(CA)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불안의 개념』, 임규정 옮김, 한길사 1999.

_____, *(FT/R)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공포와 진율/반복』, 임춘갑 옮김, 다산글방 2007.

_____, *(JP)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I-VII,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1978.

- _____, *Kierkegaard Letters and Documents*, trans. Henrik Rosenmei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JC)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KJN)Kierkegaard's Journals and Notebooks, Vol. 3: Notebooks 1-15*, eds. Niels Jørgen Cappelørn, Alastair Hannay, David Kangas, Bruce H. Kirmmse, George Pattison, Joel Rasmussen, Vanessa Rumble, and K. Brian Soderquis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SLW)Stages on Life's Way*, ed.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Three Discourses on Imagined Occasions*,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Kirmmse, Bruce H. (ed.), *Encounters with Kierkegaard: A Life as Seen by His Contemporaries*, trans. Virginia R. Laursen & Bruce H. Kirmms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1996).
- Perkins, Robert L. (ed.),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1): *Stages on Life's Way*,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2000.
- Stewart, J., Emmanuel, S. M.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KRSRR - 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s
- Westfall, Joseph (ed.), *Authorship and Authority in Kierkegaard's Writings*,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8.

국문 초록

본 논고는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의 동기에 대한 연구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키에르케고어가 하나의 인생관을 재현하기 위해 고안한 간접전달의 한 방식이다. 1841년, 그는 종교적 충돌로 말미암아 약혼녀 레기네 올센과 파혼했고, 이 사건은 간접전달의 직접적 동기가 됐다. 파혼과 관련된 불행한 사랑을 변주하는 여러 저술들이 그 증거이며, 가명 저자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의 심리학적 실험, 「“유죄냐?”/“무죄냐?”」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실험을 포괄하는 간접전달의 주요 동기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동기로부터 배후의 내적 동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장 1절 ‘보속’은 전체 저작을 전 약혼녀 레기네에게 헌정한 키에르케고어의 유언을 다룬다. 2절 ‘두려움과 떨림’은 파혼 이후 저술가가 된 경위를, 3절 ‘폐쇄성의 침묵’은 간접 전달의 심층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 및 레기네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해 고찰한다. 4절 ‘고백’은 귀담의 폐쇄된 영혼의 탄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타키투르누스 실험 자체가 폐쇄성의 침묵을 깨는 키에르케고어의 자기 고백적 행위임을 논증한다. 3장 ‘발성’은 귀담의 폐쇄성의 침묵의 발성을 돕기 위해 삽입된 「“유죄냐?”/“무죄냐?”」의 여섯 개의 단편들의 해석을 시도한다. 전체 논의의 핵심적 결론은 2장 4절 ‘고백’에 있다. 여기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을 창출한 폐쇄성의 침묵과 고백의 투명성 간의 상호 모순된 변증법적 동기가 밝혀진다.

핵심어

레기네 올센, 심리학적 실험, “유죄냐?”/“무죄냐?”, 키에르케고어, 폐쇄성의 침묵

ABSTRACT

A Study of Kierkegaard's Motif for Psychological Experiment

Young-So Yoo*

This treatise is a study of Kierkegaard's motif for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is a category of indirect communication to represent a view of life. In 1841, Kierkegaard broke up with Regine Olsen, in a religious collision, which directly motivated indirect communication. Numerous variations on stories of unhappy love related to a broken engagement attest to its influenc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among them is a psychological experiment, "Guilty?"/"Not Guilty?" by a pseudonymous author Frater Taciturn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four central motifs for indirect communication encompassing psychological experiments and to develop a discussion step by step from historically proven motifs to beneath-the-surface motifs. Part 2, Section 1, "Satisfaction," starts by considering Kierkegaard's will to dedicate the entire authorship to his former fiancée Regine. Section 2, "Fear and Trembling," discusses how he became an

* Research professor, Hongik Univers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2026647).

author after his disengagement. Section 3, “Inclosing Reserve,” deals with Kierkegaard’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and his unhappy love with Regine. Section 4, “Confession,” argues that the experiment itself by Taciturnus, who wrests a sigh from Quidam’s inclosed soul, is Kierkegaard’s confessional act breaking his enclosing reserve. Chapter III, “Vocalization,” attempts to interpret the six thematic, titled pieces inserted in “‘Guilty?’/ ‘Not Guilty?’”. These pieces help Quidam-Kierkegaard’s inclosing reserve to vocalize. A key conclusion of the whole discussion lies in Part 2, Section 4, “Confession.” Here the dialectical motifs of both self-encloser and transparency of confession are revealed.

Key Words

“Guilty?”/ “Not Guilty?”, inclosing reserve, Kierkegaard, Psychological Experiment, Regine Olsen